



볼룸



lotus dome



애플 박물관을 훑치다



개막 한 달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 작품은 꼭 보세요

이길형 총감독 11점 추천...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 31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디자인센터 등서 열려

1919년 세계최초 현대 디자인과 교육의 시발점이었던 바우하우스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의 의미를 대중에게 확산시

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시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본전시 2관은 '다음 세대에 주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다. 바우하우스 설립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인 'Imaginista'

와 현대 시각예술과 디자인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들이 재해석한 바우하우스 철학을 보여준다. 바우하우스가 세계 디자인사에 미친 영향과 현대사회에 이어지는 디자인철학을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학습기회

가 되고 있다. 독일의 비영리 리서치재단인 Savvy Contemporary의 협력으로 바우하우스 설립자 월터 그로피우스가 설계한 넷사우 바우하우스 건축에 담긴 철학과 상징성을 스캐일 미니어처로 재현한 구조물(Tiny Bauhaus)도 인기도. 한편 지난달 7일 개막 이후 한 달여를 맞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꼭 봐야 할 전시로 이길형 총감독이 11개 작품을 추천했다.

△헝가리 키스 미크로스의 '볼룸 Ball room' △네델란드 단 로세하르데의 'Lotus Dome' △비트라 뮤지엄과 다니엘 뷔샤드의 '모두의 거실이 되는 도시' △애플의 역사전 '애플박물관을 훑치다' △주식회사 나팔의 액자 스피커 '공간에 음악을 담다' △기아자동차의 '2019 기아 디자인 아트웍' △김용호(포토그래퍼 및 예술가)의 '모던보이' △디씨와트의 '그 래피티라이트' △글로벌광주의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결과물 특별전의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아카이브' △상징조형물 AIM Architecture의 'Urban Bloom' 등이다. 이길형 총감독은 "디자인은 더 혁신적 관점에서 다양한 융합으로 본질적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서 "관객이 즐겁게 관람하고 체험하면서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이연수 기자



김현 초상화
한국 현대비평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1942~1990)을 기리는 '제13회 김현문학축전'이 오는 5일 목포문학관에서 개최된다. 김현문학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장지우)는 '김현문학과 남도문학의 만남'을 주제로 개막식과 함께 '렉처 콘

내일 목포문학관서 김현문학축전 렉처콘서트·답사·문학 읽기 등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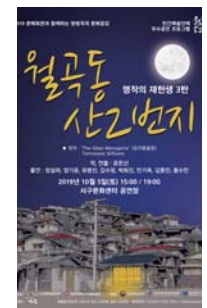
서트'와 '김현문학답사', '김현문학읽기' 등을 진행한다. '렉처 콘서트'는 그 속에 녹아든 문학방담과 막간 연극 공연, 시 노래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문학방담은 '김현을 만난 순간'을 주제로 황지우 시인과 김형중 문학평론가, 김현주 소설가, 박관서 시인이 이야기마당을 펼친다. 또한 김현이 다닌 문태고 연극반과 극단 새결이 결합해 막간상황극 '김현을 기다리며'를 공연함과 동시에 시 노래패 '시화풍정 담소'에서는 김현과 관련된 창작 시 노래 5곡을 공연한다. 최근 제1회 조태일문학상을 수상한 이대훈 시인을 비롯해 시인들의 시 낭송회와 김현문학 골든벨 등 다양한 행

사들도 함께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문학축전은 일시적이면서 단선적인 문학행사의 형식에서 벗어나 연극, 음악과 문학방담 등 장르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도된다. 또한, '김현문학답사'는 장기적인 상설프로그램으로 한 달간 매주 주말에 진행되며, '김현문학읽기'는 매주 1회씩 총 2개월에 걸쳐 운영된다. 한편 1962년 평론 '나르시스의 시론'으로 등단한 김현 선생은 프랑스 현대문학과 사상의 영향을 받아 주로 실존적 정신분석의 방법으로 평론을 썼다. 현대 한국문학비평의 새로운 장을 연 문학비평가인 그는 '존재와 언어', '상상력과 인간', '문학 사회학' 등 저서를 집필했다. /이보람 기자

1982년 시대상 담긴 가족 이야기 '월곡동 산 2번지' 내일 서구문화센터 공연장

서구문화센터에서는 가족극 '월곡동 산 2번지'를 5일 오후 3시, 7시 서구문화센터 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월곡동 산 2번지'는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협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그 예술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아 제28회 거창국제연극제 단체 은상 및 여자연기대상,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

신인연기상 등을 수상했다. 테네시 윌리엄스의 '우리 동물원'이 원작이며, 1982년 서울 월곡동 산동네의 허름한 식당 '연이네'를 배경으로 어머니와 자식 간의 갈등과 따뜻함을 풀어내는 가족 이야기다. 지금 우리 곁에 존재하거나 존재해왔던, 또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따뜻하게 그려냈다. 연출을 맡은 윤돈선씨는 "이번 공연을 통해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철하, 염기운, 유병선, 김수정, 박희진, 민기욱, 김훈민, 홍수민씨가 출연한다. 관람료는 어린이 2,000원, 일반 3,000원. /이연수 기자

ACC, 지역연계 우수전시 기획공모

5·18 40주년 특별전 등 2개 부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이 '지역연계 우수전시 기획'을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 전문가들의 역량을 지원하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공모는 2개 분야에서 3팀을 선정, 내년 4~6월께 전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첫 번째 분야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시 기획전'으로 '민주, 평화, 인권'의 가치를 주제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전시 기획공모다. 두 번째 분야는 '동시대 실험적 융복합 전시 콘텐츠 기획'이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각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및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이연수 기자

투자 가치 좋은 경매 물건 추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계(061-270-6691) / 매각기일 : 2019.10.14(月) (10:00)

2018타경 8300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2-12 외 2필지	
물건종별	임야	감정가	1,712,816,000원
토지면적	19835㎡(6000.088평)	최저가	(70%) 1,198,971,000원
건물면적		보충금	(10%) 119,900,000원
매각물건	토지 매각	소유자	유한회사리치산업
개시결정	2018-11-19	채무자	유한회사리치산업 외 3명
사건명	임의경매	채권자	김현성외 1명
관련사건	2019타경 3593(중복), 2019타경 3609(중복), 2019타경 3616(중복)		

목표	지번	용도/구조/면적/토지이용계획	㎡당 단가(공시지가)	감정가	비고	
토지	1 월암리 62-12	준보전산지, 하수처리구역, 개발촉진지구, 가족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7376㎡ (2231.24평)	109,000원 (12,600원)	803,984,000원	현황 '목전'
	2 월암리 62-15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족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2189㎡ (662.173평)	68,000원 (10,700원)	148,852,000원	현황 '목전'
	3 월암리 62-16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족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자연특정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10270㎡ (3106.675평)	74,000원 (7,640원)	759,980,000원	현황 '목전'
감정가		면적소계 19835㎡(6000.088평)	소계	1,712,816,000원	토지 매각	

